

소아환자관리법 - 울음의 유형

1. 고집을 부리는 울음 (그림 1)

큰 소리로, 아주 높게, 외치듯이 우는 울음으로서, “성질이 못된” 소아환자가 완강하게 진료를 거부할 때 나타나며, 치과진료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 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소아의 호전적 행동을 제어하는 관리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놀라서 우는 울음 (그림 2)

눈물이 쏟아지고, 경련하듯이 숨가쁘게 흐느껴 우는 울음으로서, 소아환자가 자기 능력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이러한 환자를 위의 호전적 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속적으로 세밀하게 구조화한 진료를 함으로써, 놀란 소아에게 서서히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책임이다.

3. 아파서 우는 울음 (그림 3)

이 울음은 클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그마한 흐느낌이다. 소아가 어딘가 불편하다는 첫번째

징후는, 눈 가장자리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솟아나와 뺨을 타고 흘러 내리는 것이다. 소아가 스스로 말하든지 또는 치과의사가 물어봄으로써, 소아가 아파서 운다는 사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소아가 아픔을 느껴도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모를 수도 있다.

치과진료 중의 소아환자가 아픔을 느낀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진료를 중지하고 완전한 동통제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補償性으로 우는 울음 (그림 4)

이 울음은 소아가 치과진료의 소음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는 소리로서, 일반적으로 단조로운 일정한 음조이다. 이 소리가 치과의사에게는 듣기 싫더라도, 이것은 소아가 불유쾌한 청각적 자극에 적응하는 방법이다.

치과의사는 이 보상성 울음을, 소아가 자기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성공적인 수습책이므로, 치과의사가 중지시켜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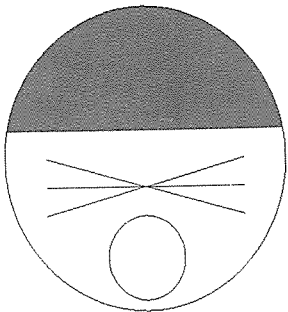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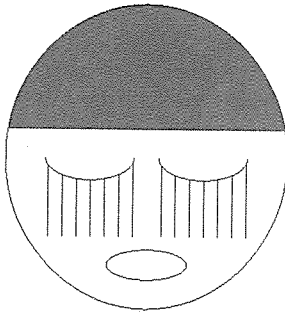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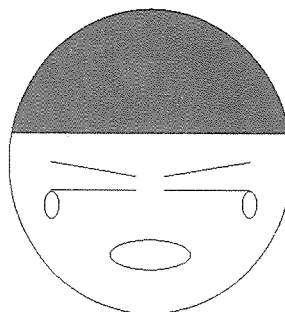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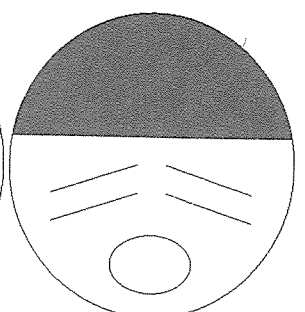


그림 4.

서울특별시 인정 제12호

아세아치과기공소

ASIA DENTAL LABORATORY

대표 이 흥 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115번지

☎ (763) 8559 · 7518 · 4488